

.....
2011 민우여성학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시 | 2011년 9월 19일(월)~ 10월 28일(금)

장소 | 고양, 광주, 군포, 서울, 원주, 인천, 진주, 춘천 각 장소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고양
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
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 민우회

· · · · · 자 료 집 순 서

1 • 전국 교육일정

4 • 강의 프로그램

5 • 페미니즘과 자녀교육_오매! 돌아버리겠네! | 정희진(여성학·평화학 강사)
페미니즘과 심리_날뛰는 나, 여성주의로 중심잡기 | 정희진(여성학·평화학 강사)

11 • 페미니즘과 자녀교육_오매! 돌아버리겠네! | 나임윤경(연세대 문화학 교수)

19 • 페미니즘과 심리_날뛰는 나, 여성주의로 중심잡기 | 권김현영(성균관대 여성학 강사)

27 • 페미니즘과 심리_날뛰는 나, 여성주의로 중심잡기 | 김영옥(한국여성연구원 교수)

29 • 페미니즘과 심리_날뛰는 나, 여성주의로 중심잡기 | 김양희(이대리더십개발원교수)

43 • 민우회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 · · 교육일정

날일	시간	장소	교육 내용	강사
9월 19일(월)	오전 10:30	진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경남 진주시 동성동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정희진
9월 30일(금)		213-18번지 리버사이드빌딩	페미니즘과 심리	권김현영
		문의	055 743 0410 □ jinju@womenlink.or.kr	
9월 21일(수)	오후 7:00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페미니즘과 심리	권김현영
9월 28일(수)		756-245번지 302호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나임윤경
		문의	032 525 2219 □ incheon@womenlink.or.kr	
9월 27일(화)	오전 10:30	양천구 신정6동 주민자치센터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2-9	페미니즘과 심리	권김현영
9월 29일(목)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나임윤경
		문의	02 2643 1253 □ namseo@womenlink.or.kr	

교육 일정

날일	시간	장소	교육 내용	강사
9월 28일(수)	오전 10:00	춘천 담작은 도서관 강원도 춘천시 469-4번지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정희진
10월 5일(수)			페미니즘과 심리	김양희
문의		033 255 5557 □ chuncheon@womenlink.or.kr		
10월 10일(월)	오전 10:30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장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타워상가 115호	페미니즘과 심리	김양희
10월 12일(수)			페미니즘과 심리	김영옥
문의		02 3492 7141 □ dongbuk@womenlink.or.kr		
10월 17일(월)	오전 10:30	원주여성민우회 교육장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번지 맑음빌딩 6층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정희진
10월 18일(화)			페미니즘과 심리	권김현영
문의		033 732 4116 □ wonju@womenlink.or.kr		

· · · · 교육 일정

날일	시간	장소	교육 내용	강사
10월 19일(수)	오전 10:30	고양파주여성민 우회 교육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정희진
	오후 1:30	776-1로데오메 탈릭타워	페미니즘과 심리	정희진
	문의	031 907 1003 □ goyang@womenlink.or.kr		
10월 19일(수)	오전 10:00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군포시 산본동 1137-1번지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나임윤경
10월 26일(수)	오전 10:30	대원플라자 301호	페미니즘과 심리	김양희
	문의	031 396 0201 □ gunpo@womenlink.or.kr		
10월 20일(목)	오전 10: 30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다목적홀 2층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정희진
	오후 1:30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페미니즘과 심리	정희진
	문의	062 529 0383 □ gjwomenlink@hanmail.net		
10월 27일(목)	오전 10:30	시민공간 나루 교육장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정희진
10월 28일(금)		나루 지하1층	페미니즘과 심리	김양희
	문의	02 737 5763 □ minedu@womenlink.or.kr		

프 로 그 램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오래! 돌아버리겠네!**

정희진(여성학자)
나임윤경(연세대교수)

자식을 키우면서 돌아버릴 것 같은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자녀교육으로 길을 잃었을 때, 소통과 관계맺음의 길을 찾는 강좌입니다. 행복한 가족은 평등한 관계 위에서 가능합니다. 여성주의로 찾는 색다른 자녀교육법을 만나보세요.

페미니즘과 심리 **널찍는 나, 여성주의로 중심잡기**

김양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교수)
권김현영(성균관대 여성학 강사)

내가 미친년인가 싶을 정도로, 감정이 널을 튈 적이 있나요?

여성의 불안과 우울, 남편과 자식을 대하면서 생기는 죄의식과 분노 등을 여성주의로 읽어보는 강좌입니다. 자신 및 관계에서 파생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며, 여성주의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오매! 돌아버리겠네!

정희진 □ 여성학·평화학 강사 tobrazil@naver.com

* 글로벌 시장 체제 / 후기 국민국가 상황의 한국 - 10대와 엄마들

이 강좌의 전제들

* 공부는 - 질문(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것, 언어를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것, 감정과 의식을 계발(digging)하는 것, 자신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깨달음으로서 잠깐 '해방'되는 것, 견딜 만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 지식과 언어의 중요성 - 모든 현실(presentation)은 재현(re/presentation)이다.

* 젠더는 홀로 작동하지 않는다.

* 여성의 범주와 여성이라는 규범

* 젠더의 가시화의 문제와 효과

* 한국사회(운동)의 '특수성' - 언어의 빈곤

* 후기국민국가('글로벌 사회')라는 상황

* 선택 밖에서 선택하지 않는다면...

* 이른바, "의미 있는 삶"

* 인간은 개인이 아니지만, 몸은 각자다. 외로움은 조건.

* 정희진 님의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페미니즘과 심리의 강의안은 동일합니다. -편집자주

*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

1) '소통' 보다 상호작용 / '해결' 보다 의미화 / '상상력' 보다 파생력 / '전달' 보다 연기(延期)/ '기원'보다 흔적 / '정의(justice)'보다 맥락 / '자유'보다 관계 / '저항'보다 협상 / 부정이 아닌 문제 설정 / 아이러니와 혼란에서 위안...

2) 탄생들 - 근대(화), 서구화, 자본주의 시대의 서막과 인구 대폭발

* 근대성(모더니티)의 특성 - 직선/단일 시간론, 생산 제작성(기계론), 의지론 (영원한 불만)

* 주체와 타자 - 인간(백인 중산층 남성) 등장과 인간이 구성되기 위한 자연, 동물, 여성, 시간의 공간화) 고안. 모든 지식은 말하는 사람 자신에 대한 것이며, 모든 인식은 투사이다.

* 국가, 민족, 도시, 문명, 인종, 사회, 노동, 모성, 생애주기, 색깔, 미디어, 지리, 등등 탄생

* 객관성, 보편성, 과학, 이론, 체계, 실험, 현실, 섹슈얼리티, 감정, 理性 개념 탄생

* 위 모든 것이 구상되기 위한 위계적, 잔여적, 타자화된 개념 탄생(조작)

cf) '통합'을 위한 대량학살(인종말살), 전쟁, 탐험(여행, 정복)...

3) 자유주의 / 구조주의 / 후기구조주의

개인 - 역사주의, 기능주의, 실증주의, 발전주의, 진보주의, 합리성...

구조 - 맑스주의, 페미니즘 등 각종 거시 이론, 거대 담론(grand theory)...

개인과 구조의 이분법 비판 - 후기구조주의(포스트모던, 언어이론, 정신분석, 생태주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들', 하이브리드 이론들)

cf) 포스트(post)의 의미 - 후기(後期), 탈(脫), 여파(餘波), 지속(持續), 탈색(脫色), 변형...

4) 자유주의(liberalism)의 문제(question)는 곧 근대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질문

자유주의의 내파, 내포되는 배제 / 자유주의의 spin off / 자유주의의 임의성 / 자유주의의 가능성, 급진성 / 자유주의의 대안?

cf) 개인주의의 특성 - 존엄성, 자율성, 프라이버시, 자아발달, 추상적 개인 그리고 이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과 재해석

“길은 없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으로 가는 길은, 가장 길게 돌아가는 길이다”

* 본 강좌의 목표

1) 얇은 주물럭, 조형력(造形力)이다. 기존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다른’ 시각(여성주의 혹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서 재해석, 확장,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언어와 더불어 자기(‘내면’)성장과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문턱으로 삼자.

3) 우리의 일상(현실)이 아이러니, 모순, 딜레마, 역설, 혼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사유의 자원과 마음의 위안을 얻는 연습을 하자.

* 본 강좌가 지향하는-사고방식의 변화

1) ‘소통’ 보다 상호작용 - 소통의 ‘본질적’ 불가능성. 내가 변할 것인가? 세상과 타인을 변화시킬 것인가? 상대방, 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대화는 힘의 작용, 반작용이지 합의가 아니다. 세상,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2) ‘해결’ 보다 의미화 - 어떤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한가? 아니면, 문제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해결은 대개 내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의미화는 내 안에 ‘간직’된다.

3) ‘상상력’ 보다 파생력 - 꿈 보다 해몽이란? 상상력과 현실의 관계는? 현실 초월, 회피, 부정, 외면이 가져오는 마음의 병. 현실(언어)의 내외부는 없다.

4) ‘전달’보다 연기(延期) - 우리가 하는 말은 과연 그대로 전달되는가? 아니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부분적 전달의 연쇄, 즉 의미의 연기(delay)가 아닐까? 언어 전달 과정에서 의미가 변화한다는 이론의 의미는 무엇인가? “差移”

5) ‘기원’보다 흔적 - 역사에 최초가 있는가? 기원적 사고, 직선적 역사관의 폭력성과 착취성, 비인간성. 문명은 전파되는가? 번역되는가? 인과론의 관념성. 종단적 사고와 횡단적 사고의 차이는? 오리지널, 원조(元祖), 조상 최초...라는 사고방식이 만들어진 과정. 역사는 기원의 흐름이 아니라 역작용, 동시성, 우연의 산물. 그래서, “제국은 국사가 없다”, “남성은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다”

- 6) '정의(justice)'보다 맥락 - 지식의 맥락성과 시공간의 의미. 지식의 정당화 과정.
- 7) '자유'보다 관계 - 자유의 불가능성. "공기와도 같은 가부장제"
- 8) '저항'보다 협상/생존 - 저항의 불가능성. "현실은 진공 상태가 아니다"
- 9) 부정이 아닌 문제 설정 - 부정의 불가능성. "지구를 떠나라", "북한으로 가라"
- 10) 침묵, 무위의 힘을 믿는다. 선택 밖에서 선택한다. 만족스러운 삶, 신나는 삶...
- 11) 타인, 사회로부터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 내가 나, 나의 삶을 정의하는 힘 기르기.

- * 페미니즘의 변화와 성찰
 (남성과 공적 영역에서) 평등 / 근대, 인간(중심주의)의 등장
 “단두대에 설 권리가 있다면...” / “여성의 사회 참여와 양성평등”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딜레마 / 서구 백인 중산층 이성애 중심의 여성 규범
 실존주의 - “타자로서의 여성”
- * 맑스주의, 클라라 제트킨의 고통
- * 급진주의, 여성 경험의 사구 중심적 본질화

- * 정신분석, 현실과 욕망의 문제
- * 보살핌 윤리, 평등(자유, 권리...)에서 책임으로
- * 육체 페미니즘, 몸 중심의 사유 체계가 의미하는 것

- * 포스트모더니즘, 도대체 누구 중심의 근대인가?
- * 후기구조주의, 구조주의(맑스주의, 근대 페미니즘)의 한계를 넘어서
- * 탈식민주의, 자기 정의는 가능한가? 기원이 있는가? ‘그때그곳’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 * 모든 지식(사랑)은 조건적이다. 이것이 역사의 의미. 이른바, “맥락적 지식”, “부분적 지식”, “상황적 지식”, “부분적 관계”, “부분적 사랑”, “인생무상”, “운동은 순간”

2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오매! 돌아버리겠네!

나임윤경 □ 연세대학교 문화학과

1. 들어가며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탓인지, 80년대 중반 어느 날의 내 일기장에는 "한국 교육은 온갖 약물을 투여 받은 내성(耐性) 강한 병든 몸 같아, 웬만한 약으로는 감기도 못 고치게 되었다"라는, 다소 절망적인 심경을 담은 메모가 적혀 있다. 그래서였을까. 90년대 중반, 미국 유학을 결심하면서는 성인교육을 전공하고자 했다.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이 교육 받는 아동이나 학생에 대해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행하는 성인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니, 유학 전 잠깐 영어학원 강사 노릇을 하면서 만난 강남의 30대 '똑똑한' 여성들의 에너지를 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산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다. 그리고 지금, 교육학이 아닌 여성학과 문화학을 공부하면서는 '교육'이 '대입준비'와 동의어가 된 상황과, 그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는 데 고등교육 여성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2. 한국의 고학력 여성과 사교육 중심의 모성

사교육과 관련한 모성 연구에서 스스로도 밝힌 바 있듯이, 중산층 고등교육 여성들이 자녀 사교육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교육에는 무관심한 듯한 가부장은 아이 성적과 관련해 부인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함으로써 그녀의 모성과 부인성을 평가한다. 본인들의 계층을 대를 이어 유지하고자 하는 재력 있는 시부모는 손자녀의 입학 대학 순위에 따라 머느리를 차등 대우한다.

그리고 또 있다--안전망 부재의 한국사회. IMF 구제금융 이후 추락하는 중산층에 대해 한국사회는 팽팽한 그물을 펼쳐주지 못 했고, 그 결과 극소수의 '인간극장' 주인공들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기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근대사회로 이행하던 초기의 식민시기와 뒤이은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정의(justice)보다는 '연줄과 뺨'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왔고, IMF 구제금융에 따른 안전망 부재의 사회적 조건은 학력이라는 '객관적 스펙'에 대한 믿음을 더해 놓았다. 연줄, 뺨, 그리고 학력--한국사회에서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적어도 추락할 염려는 없게 되었다. 아니 그럴 것이다 라는 신화가 생겨났다. 연줄과 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반해, 학력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기에 한국사회는 거기에 '꽃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담당자로 고학력 여성이 호명되었다. 어머니 세대와는 다르게 교육을 통해 대(對)사회적 욕망을 부여받은 그녀들이건만 가정에 머물며 '자녀교육 책임자'라는 호명에 부응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녀들의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가부장적 문화와 안전망 부재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치맛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사교육에 함몰된 여성들에게 대안이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의 맥락을 점점 더 악화시켜 온 것과 관련해 고등교육 여성에 관한 비판적며 성찰적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 남성들과 동등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여성 운동가와 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교육자원이 사적 영역에 맡겨 묶인 여성들로 하여금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공/사의 경계를 헐며 육아, 가사, 그리고 임금 노동 모두를 남성과 동등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적어도 한국의 고등교육 중산층 여성들은 공/사의 경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사적 영역에서의 권력을 키우더니, 이제 그 힘은 자녀에 대해 과잉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초기 여성 운동가와 학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등교육 여성들은 남녀가 놓인 공/사 영역을 느슨하게 하기보다는 최근 유행하는 '일류대 입학의 삼박자'--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가 말해주듯, 자녀교육에서 남편을 소외시키고 계층유지(혹은 상승)를 위한 수단으로서 가부장적 가족과

사회가 떠넘긴 자녀교육 '의무'를 '권리'로 착각하며 경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식민시기, 전쟁, 그리고 IMF구제금융 사태 등, 계속되는 사회적 불안이 개인들에게 체질화 된 한국사회에서 중산층 혹은 주류와 다른 노선인 이른바 '하위문화'는 일찍부터 실종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교육 여성들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행태는 곧바로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일반적 현상이 되고 말았다. 공/사 장벽에 가뒀두고 사회적으로 발휘하지 않을 과잉적 권력을 쥐고 있는 여성들은 그녀들을 어설피게만 따라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계층 여성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녀들이 그렇게 집안에 머물며 자녀 사교육에 매진하는 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교육정책과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본고사, 내신, 논술, 무시험 등 전문가가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해법에도 이 여성들은 사교육으로 맞설 것이며, 그녀들의 행보는 다른 지역과 계층의 여성들에게 교육적 믿음과 철학을 무화시키며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불안감과 박탈감을 더해 줄 것이다.

3. 여성 능력의 사사화

이 글에서 교육문제와 관련해 마치 주범처럼 언급된 고학력의 그녀들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남성중심 사회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주변에는 사회에서 인정받은 능력을 사장시키며 어쩔 수 없이 자녀교육만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드물지 않다. 여성들에게 얼마 정체성 이외의 다른 '공적 정체성'을 기대하지 않은 한국사회였기에 그녀들의 이른바 '사회생활'은 수월하지 않았다. 대학까지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는 허위 이데올로기로 교육 받은 그들이었기에 여성에 대한 적대적이고 편협적인 사회의 시선은 낮설고 당황스러웠다. 사교육문제와 관련해 만난 한 여성은 말한다. "여러 사람에게 차별받고 무시당하느니, 남편을 비롯한 시집 식구 한두 사람에게 차별당하는 게 나을 거라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결혼했죠"라고. 공적 존재로서의 성장 기회를 차단당한 그녀들은 발휘되지 못했던 에너지를 사적인 공간에서 쏟아낸다. 그러나 취업이 차단당한 채 사적 공간으로 배정된 한국 여성들은 이태리, 스페인 등의 '마초 나라' 여성들처럼 저출산을 선택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한국의 교육 문제에 이은 저출산 노령화의 문제는 여성들의 대사회적 욕망과 그 욕망 실현을 위한 길고 긴 준비과정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은 남성중심적 사회가 여성의 자리를 가정으로 제한한 데에 따른 반작용일지 모른다. 억압당한 그녀들의 에너지가 다시 날아드는 부메랑처럼 지금 한국 사회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한국의 교육문제는 지성과

대사회적 욕망과 에너지로 충만한 이 여성들의 자리를 가정이 아닌 공적 영역에 마련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사화(私私化)된 여성들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공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교육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작한 공익광고 협의회 출신장려 캠페인 TV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정부가 여성의 에너지를 공공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는 이 광고는 첫 번째 장면에서 생활의 안정이 우선이라 생각했던 맞벌이 부부 3년차 여성이 생각을 바꿔 가정에 머물면서 남편의 저녁 식탁을 준비하다가 "이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 장면의 여성도 사교육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한 자녀만을 두었던 자신의 결정을 뉘우치며, 첫 아이에게 "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광고의 말미에는 그 또래 한국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다산 추동성' 멘트가 나온다. 정부가 교육문제에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여성의 에너지를 사사화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여성의 에너지가 가정으로 제한된 마초 나라들에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소(少)자녀에게 집중 투자함으로써 정지되었던 시간과 억압된 에너지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을 얻고자 하는 여성들은 그녀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은 수의 자녀에게 분산시키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처럼 자신의 모성과 부인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연결되는 맥락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여성들의 자리를 집안으로 배정함으로써 그녀들의 에너지를 사사화하려는 남성중심적 사회의 기획은 지금과 같은 과잉적 사교육 문제를 낳았으며, 그것은 다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낳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경쟁에 시달리며,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돈이 환수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즈음의 40, 50대는 자신들의 노후에 대해 불안해한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수의 사교육업계 종사자 말고는 그 누구도 한국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질 수 없다. 한국인들에게 체질화된 불안감이 희석되기는커녕 다시 공고해지는 것이다. 어떻게 이 오랜 악순환에서 벗어날 것인가.

4. 보살핌의 공공화

몇 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광화문에서 보았던 '유모차 여성'들을 떠올린다. 여러 사회학자들이 '일상의 정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그 여성들을 해석해 낸 모

양이지만, 나는 거기서 그녀들의 대사회적 욕망과 그 욕망을 실현하게 할 에너지를 보았다. 당시 정부는 이 여성들의 행위를 남편에게 알린다며 협박하면서 그녀들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그녀들을 가정 안에 있는 존재로 묶으려 했다. 그러나 한번 광장에 내뿜어진 그들의 에너지는 쉽게 제압당하지 않았다. 82cook.com 등 20~40대 여성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글들은 그녀들이 가정 안에만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다른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낸 이유는 그것이 '자녀'들의 먹거리와 건강 문제였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광장에서조차 '내'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만의 정체성을 가진 데에는, 그럴 때라야만, 그들 앞에 유모차를 놓아두었을 때라야만 그들이 사회적 존재,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한국사회의 맥락이 있다.

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여성을 '관계지향적', 남성을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 개념화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질적'(그 이전에는 도덕 발달단계상 여성이 하위에 놓인다는, 성별 간 '양적' 차이 논의가 우세했다) 차이를 지지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몇몇 여성학자들은 관계지향성에 녹아 있는 '타인에 대한 보살핌'의 윤리야말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해 줄 '정의'(justice)라고 새롭게 개념화하고 있다. 타인을 길러내고 보살피는 일 없이 인류의 지속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과 환경파괴로 인해 모든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때에 보살핌의 윤리가 정의로움으로 개념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확장된 정의 개념 안으로 포함된 보살핌의 윤리는 공/사의 분리된 영역에서 '공(公)'이 '공'답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보살핌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미 보살핌의 윤리를 실천해 온 '사(私)' 역시도 혈연에 기반하지 않은 존재로서의 타인에 대한 보살핌을 실천할 때 정의롭게 될 수 있음을 얘기한다. 공적 영역이 타인에 대한 보살핌을 실천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적 영역 역시 지금까지의 보살핌을 확장해내면서 정의로움을 실현한다면, 그 결과는 공/사의 공고한 경계를 허무는 것이고, 동시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자식만을 돌보며 보살핌을 실천해 온 여성들의 모성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며 그것에 '정의'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일, 그것이 결과하게 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5. 나가며

한국의 직업 수는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물론 인구 규모가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상상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입을 위한 사교육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공부에 '올인'하는 한국 학생들은 문제 한두 개 차이에도 전교 석차 수십 등을 오고 갈 만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실력'을 갖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른바 SKY에 진학하여 사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상위 몇 %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사교육의 양과 질이 입학하는 대학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금과 같은 맥락에서라면 (서울대 입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문직 부모를 가졌다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력 상위 몇 %의 부모만이 자녀들을 SKY에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SKY 혹은 그 언저리 대학에 대한 욕망을 키워가며 그곳에 프리미엄을 얹어 놓기보다는 그곳을 그저 상위 몇 %만의 전쟁터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90명 100명이 욕망하는 그곳을 그저 10명만 욕망하게 하는 곳으로 만들어 '값'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나머지 90명은 다른 욕망을 갖고 다른 상상을 하면서 대학 아닌 다른 공간의 '값'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해 주어야 할 몫이며, 그럴 수 있을 때 아이들은 담벼락으로 둘러쳐진 학교나 좁은 학원에서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펼쳐진 다른 공간에서 자신을 탐색하며, 때론 방황도 하겠지만, 결국 자기를 찾아가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호시절'. 그들에게 호시절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아이들에게 이러한 호시절을 만들어 주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욕망과 상상을 갖도록 해 주는 주체가 여성이 되면 좋겠다. 집안에서 '내' 자식은 조금 덜 돌보는 대신 그 열정을 밖으로 돌려 내 아이와 다른 아이가 함께 어울리며 자기를 찾아가는 길, 그 길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보충수업 없는 학교를 상상해 본다. 초중고등학교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2-3시쯤 귀가하여 엄마 없이도 스스로 손을 씻고 약간의 간식을 먹은 다음, 공식 수업이 끝난 학교이지만 4시쯤부터 다시 '꿈이 있는 학교'로 탄생하는 곳으로 어슬렁어슬렁 발걸음을 옮긴다. 이 학교는 사교육비를 줄여 각 가정에서 월5만원씩 낸 돈으로 꾸려지는데, 거기서는 미장원을 운영하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미용스쿨이 있고, 인문학을 전공했던 엄마들이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가 있다.

연극배우가 되고 싶었던 엄마는 낮에 문화센터에서 연극을 배우고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벽면에는 회사에 다니는 엄마/아빠들이 아이들을 직장에 초대하고자 하는 낱자들이 적혀 있고, 야채장수 하는 엄마들을 아이들이 도와드리는 낱자도 쓰여 있다. 미처 간식을 먹고 나오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500원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엄마도 있고, 명상이나 요가를 가르쳐 주는 엄마도 있다. 간간히 관심을 보이는 아빠들도 나와서 엄마들을 돕거나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장사, 목공, 비즈니스 영어...등등. 물론 운동장에서 편을 갈라 축구나 농구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다방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노는 아이들도 있다. 그 동네에는 대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도 있는데 미리 스케줄을 짜서 엄마들을 돕거나 엄마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틈새를 이용해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뜨개질, 노래, 그림, 체육, 요리, 수학... 등등. 또 각 프로그램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 대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가 개인교사로 활약하기도 한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만은 지자체에서 시간당에 따른 급여를 주고, 이 기록은 이들이 취업할 때 회사나 정부로부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7시쯤 끝나지만 가끔씩 아이들과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밤늦도록 토론을 할 적도 있다. 엄마, 아빠의 퇴근시간이 늦을 때면 아이들은 그곳에 간다. 이 마을에는 계절별 혹은 연말에 연극이나 그림 전시회 같은 이벤트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머리를 예쁘게 잘라드리는 행사 같은 것도 있다. (그 와중에서도 엄마가 모는 자가용을 타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옮겨 다니는 아이들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게 하면 되겠지).

이러한 '공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화문 광장과 82cook.com 등에서 보았던 지성과 에너지 충만한 여성들이 필요하다. 그녀들의 사사화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 '내'아이는 조금 덜 돌보면서 다른 아이와 '내' 아이가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의를 실현하는 마을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을 때 한국 사회가 아이들을 향해 의사, 변호사, 교수...등등의 뻘한 꿈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동네에서 내게 연극을 배웠던 아이들 중 뮤지컬 배우로 성장하는 아이가 나올지도 모른다. 카페의 주인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멋진 공연장과 토론장을 마련할 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 유기농 야채를 재배하면서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아이도 있지 않을까. 특이한 식물을 키워 수출하며 무역가로서 성장하는 아이는 왜 없겠는가.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다고 서툰 기타 솜씨로 음악회를 열어 주위

어른들에게 표를 강매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러나 솔직히 그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살지 잘 모르겠다. 그건 그 아이들이 알아서 할 몫이고 우리 어른들은 그저 그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짓'을 하면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지금까지 가정에서 '내' 아이만을 돌보도록 기대 받은 우리 여성들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는 타인을 돌보아 온 역사가 있고, 이제 그 역사는 새로운 정의(justice)를 요구하는 새 세상을 맞고 있으니.

3 페미니즘과 심리

날뛰는 나, 여성주의로 중심잡기

- 여성주의심리이론에 대한 이해

권김현영 □ 성균관대학교 여성학 강사

1. 심리이론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1) 심리이론과 사회통제

- 정신과 의사들은 청소년기의 방황을 저항이 아니라 병이라고 한다. 이것이 정신과가 사회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지점
-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구조주의자들(푸코, 레비스트로스 등)은 정신분석에 반대하는 운동 등을 통해 이러한 사회통제적 기능으로서의 정신분석에 저항
- ‘적응’ 이론의 기본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 이때 치료는 체념의 과정.

(2) 성역할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의 전제들

- 아이가 태어난 직후(24시간 이후) 아버지들 아들의 경우 운동능력이 뛰어나고, 주의력이 높다고 보고하고, 딸의 경우 부드럽고 허약하고 주의력이 낮으며 허약하다고 보고 (Tronick & Chon:1989, 80)
- 부성애와 모성애에 대한 다른 정의
- 전통 심리상담은 성별에 편견을 가지고, 진단적 명명, 남성중심적 해석, 과도하게 문제를 개인의 것으로 귀인시키는 방식으로 여성환자를 차별 (그린스펜:1998/2009, 심영섭:2002)

아인 등은 문명을 누릴 정도의 지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 ex: 남아프리카 “사끼 바트만”)

-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성욕”과 “식욕”과 같은 본능을 다른 “욕망”으로 치환 가능, 이때 성욕과 식욕을 어떻게 다른 문명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등장

3. 정신분석학의 전제들

(1) 무의식

- 정신분석은 인간 정신의 비의식(=무의식)을 탐구하는 학문
- 프로이트의 가장 큰 공헌은 “무의식”을 이론화 한 것
- 손상이론(affect-trauma frame of reference)을 통해 무의식을 발견 : 안나오 증례
- 과거의 고통스런 사건에 대한 기억 혹은 심리적 손상들이 육체적으로 가시화되는 육체화(혹은 신체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

(2) 무의식의 증례 : 히스테리의 전성시대

- 남성, 여성 모두 지적능력은 뛰어나나 신경쇠약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발견되거나 집안일을 내팽겨치는 여성들의 증가 “중세에 그녀들이 마녀였다면 이제 그녀들은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일 뿐이다”
- 히스테리 연구의 시작 (프로이트와 브로이어 1896년 예비적 보고서 출간) : 안나 오 지나치게 어린 시절에 겪은 성접촉으로 인한 증상이 원인으로 지목
- 히스테리 원인론에 대한 수정 : 프로이트는 1906년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서 그리고 이후 “female sexuality”에서 의견을 수정 “아버지와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어머니를 경쟁상대로 삼고자 하는 딸의 환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이후 페미니스트에게 격렬한 비판)

(3)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

- 무의식은 현실에 있었던 사건 혹은 (어린시절)의 (성적) 욕망과 좌절과 관련.

- 의식과 무의식의 분리는 방어기제를 통해 일어남.
- 무의식의 특성 : 전치, 함축, 무시간성, 현실무시, 심리적현실의 크기 증대, 모순없음, 부정이나 반대개념없음, 말은 의미가 아니라 실제의 영역에 존재

(4) 본능으로부터의 '분리'

- 종교적 금욕주의는 인간의 성욕을 인간 정신의 한계로 묘사했지만, 그러나 근대적 이성중심주의는 인간의 성욕을 물질로 취급, 이에 대한 “지식”을 통해 성욕을 “지배”(혹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
- 근대 이전 여성은 남성보다 성욕을 통제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신을 모독하는 존재이자 신성이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으나 근대 이후 여성은 성욕이 없는 존재 혹은 성욕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취급됨. 성욕이 (생물학적) 본능에서 욕망으로, 에너지로 이해.

(3) 본능과 충동의 구분

- 인간과 동물의 차이 : 본능과 충동
- 1) 자기보존의 본능 (식욕과 성욕)
 - 식욕과 성욕은 한편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욕구이자 다른 차원의 쾌락으로 이동
- 2) 죽음충동 (수면욕과 폭력)
 - 자살과 우울증, 폭력 등은 존재의 불확실성과 유한성을 상쇄하고자 하는 행동

(4) '남근' 의 상징화

- 1) 아이는 어떻게 남자가 되는가 :
 - 어머니와의 동일시로부터 분리
 - 아버지의 질서에 대한 복종
 -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권위에 대한) 인정
- 2) 아이는 어떻게 여자가 되는가 :
 - 어머니와의 동일시로부터 아버지와의 동일시로의 이동
 - 아버지와의 동일시는 결핍으로 인해 실패
 - 남근에 대한 결핍을 수용 -> 곧 어머니-되기를 통해 대체물로서의 아이

* 남근(penice->phallus) = 상징계(곧 아버지의 이름father's name)

-> 부재와 결핍으로서의 여성성에 대한 정신분석의 오래된(여전히 완고하게 깨지고 있지 않은) 전제

5. 성장과정의 최초 '분리'와 모성의 지위

(1) 남근의 분리/여성의 미분화

- 남성의 성적 욕망은 전체 자기 자신의 몸과 성적 대상과의 유기적 관계로부터 "분리"되고, 남근에 "집중"되는 것으로 묘사

- 따라서 성적 욕구가 아주 강한 남성은 "동물"(혹은 짐승)인 동시에, 타인의 성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을 갖춘 존재, 곧 재산권을 가진 근대적 인간으로 형상화

- 그러나 여성의 경우, 여성은 몸 전체가 성적이므로 성욕을 "분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분화된(성욕이 없거나 너무 과잉된) 곧 문명 이전의 존재로 격하

(2) 어머니 분리 1: 여성분리의 효시

- 좋은 여자/나쁜 여자, 마리아/창녀 등의 이분법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중 성적인 것을 나쁜 것으로, 그 외의 것을 좋은 것으로 나눈 결과.

- 따라서 어머니는 무성적 존재이거나, 성적 존재로서의 어머니는 끔찍한 존재로 재현.

-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남성의 욕망 문제에서 -> 여성의 욕망 문제로 이동

(3) 어머니 분리 2 : 오염

- 어머니는 월경과 출산의 관계 안에서 불결한 것으로 구성되었고, 일련의 육체적 금기에 기반을 둔 유대의 법은 모성을 상징하는 것을 구분해 비체로 구성한다. 성서적 혐오는 오염시키는 물체를 '외부에서'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는 구조를 통해 여성을 제외시키는 상징계적 질서를 구축, 그러나 예수의 강림 이후 오염은 내부로부터 나오고 주체에 의해 말해지는 '죄'로 재규정되었다. (바바라 크리드, 88)

(4) 모성신화

모든 (심리적) 문제의 근원에는 "어머니"가 존재

어머니에 대한 사회통제와 결합되어 모성신화가 강화되는 효과

책임은 무한대로 있되, 권력은 없는 어머니

어머니의 권력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때?

-> 괴물 같은 어머니에 대한 재현들

-> 아들에 대한 병적 집착

-> 분리된 자식은 누구에게로?

(5) 애착이론 : · 현대 모성신화의 재탄생

· 애착(attachment) :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관성있게 느끼는 감정적 친밀한 유대관계에 대한 감정

· 반응성 애착 장애와 심리발달의 문제들

“모성애가 본능에서 책임으로 이동”

(생물학적 본능적 모성 -> 근대적 훈육을 담당하는 과학적 모성 ->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주는 근대적 모성 ->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관리적 모성)

(ex: 해리할로우 붉은털원숭이실험- 메리에인즈워드 낮선상황실험- 위니콧 애착형성 3단계설)

6. 여성주의 비판과 대안

(1) 남성중심적 발달이론 비판과 여성의 목소리

- 여성은 비도덕적이고, 문명화되지 않았으며,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충족시키기에 부적합한 존재라는 성역할 편견이 기존 심리학과 사회학에 스며있어.

- 20세기 초 여성참정권운동은 여성이 과연 시민으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에서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의 심리적 결과 여성에게 정의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반발.

- 콜버그의 6단계설 : 여성은 3단계, 남성은 4단계로 이뤄진다고 설명

-> 길리건은 “다른 목소리”에서 콜버그 비판, 콜버그는 여성이 양가적 태도, 즉 사적이고 공적인 것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성이 “정의”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재하고 이성적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봄. 그러나 길리건은 여성들에게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다른 기준이 있다고 설명

- '발달이론'에 대한 비판 및 재구성 : 하인즈 딜레마

-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이론
- 길리건의 여성도덕성발달의 2 혹은 3단계 원형순환/ 변증법적 순환
(ex: 여성의 도덕판단과정 - 각단계는 직선구조가 아니라 순환구조, 1단계 : 자기 생존 중심 / 2단계: 타인에 대한 피해 최소화 / 3단계 : 자기 이해 중심 / 4단계 : 보살핌과 순응 / 5단계 : 자기와 타자의 이해 / 6단계 : 이타적이고 상호적)

(2) 모성신화의 해체와 재구성

① 모성분리에 내재된 여성의 이원화 비판

- 좋은 여자/나쁜 여자, 마리아/창녀 등의 이분법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중 성적인 것을 나쁜 것으로, 그 외의 것을 좋은 것으로 나눈 결과.
- 따라서 어머니는 무성적 존재이거나, 성적 존재로서의 어머니는 끔찍한 존재로 재현.

-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남성의 욕망 문제에서 -> 여성의 욕망 문제로 이동

② 과대책임, 과소권위의 모성지위 문제

- “이미 거세당한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남성의 거세 콤플렉스의 원초적 장면을 구상한다는 프로이드의 해석과는 달린, 거세하는 여성, 즉 이빨달린 질의 이미지가 공포의 근원으로 기능하는 형상들이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존재 (메두사의 머리, 여성 드라큐라들, 에이리언을 비롯한 외계의 여성괴물들)

- 특히 여성자궁에 대한 이미지는 거세를 중심으로 상징화되는 것이 불가능.

- 많은 공포영화에서 어머니들이 자신이 출생시킨 것들을 다시 집어삼키겠다고 하는 이미지가 포괄적으로 등장. 죽음의 욕망 죽음의 매력은 어머니와 원초적으로 하나였던 단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전시

③ 애착이론에 대한 비판

- 애착 :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관성 있게 느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감정
- 반응성 애착장애와 모성신화 (본능에서 책임으로 모성의 역할 이동)
- 기존 애착이론은 "아이"를 중심으로 설명. 그러나 어미의 적응 역시 중요한 문제. 진화적 적응환경에서 모성의 전략적 선택과 임신중단의 보편성 설명.
- 무조건적인 헌신적 어미가 아니라 전략과 책임자로서의 어미 (하디)
- “진화적 적응환경”은 자연환경과 잉여자원의 풍부함 정도, 양육환경의 가변성에 따라 유연하게 발달. 초기 양육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어른이 된 이후 다른 상황과 조건들이 개선되면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영장류

인간들은 다회번식과 오랜 양육기관이라는 종의 특성상 다양한 번식통제와 선택이 필연적.

④ 대상관계이론과 관계적 자아

- 멜라니 클라인 :단계에 따라 성장이 아니라, 입장에 따른 상황선택의 과정으로 이해)

(편집-분열) 입장 <-> (우울) 입장

“어머니” 역시 하나의 상황적 입장으로 이해

- “투사적 동일시” - 전이/역전이/투사적 동일시)

4 페미니즘과 심리

넌 띄는 나, 여성주의로 중심잡기

김영옥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교수

※ 별도 자료로 배포됩니다.

5 페미니즘과 심리

날뛰는 나, 여성주의로 중심잡기

김양희 □ 젠더앤리더십 대표. 이화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gnl2020@gmail.com

1. 무슨 투성이 나

나, 여성

- 내가 여자인 게 좋다
- 내가 여자인 게 싫다
- 인정 받지 못해서
- 성격이나 생긴 게 여성스럽지 못해서
- 다시 태어난다면?
- 여자로?
- 남자로?

여자와 겨울 날씨는 믿을 수가 없다

- 여자는 아침상을 들고 오면서 열두 번 변한다
- 여자와 가제는 가는 방향을 모른다
-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도 밍다”가도
- 곧 마음이 바뀌어서
- “며느리는 미워도 손자는 귀엽다”

널 뛰는 나

- 가장 현실적인 나, 가장 낭만적인 나
- 주체적이고자 하는 나, 의존하고 싶은 나
- 평가 받는 (머느리)입장이 죽도록 싫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 연약한 나, 강한 나
- 굶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 치사한 나, 굶어 부스럼이라도 만들고 싶은 나
- 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 밥이 지켜운 나
-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 (때론)아이가 넌더리 나는 나
- 남편이 측은하게 느껴지는 나, 남편이 미운 나
- 널 뛰는 우리
- 여성은 남성보다 연령과 경험에 따른 변화가 큼

널 뛰는 나: 기분 그래프

- 피험자에게 뼈뼌을 채워주고 신호를 보낼 때마다 자신의 기분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함
- 30-40대 기혼 여성의 기분 그래프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
- 기분이 아주 좋다가도 어느 한 순간 곤두박질치는 경향이 여러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슷한 시간대였음.
- 왜였을까?

여자의 콤플렉스

- 착한 여자 콤플렉스
-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 자아를 희생
- 신데렐라 콤플렉스
- 의존하고 보호받고 싶은, 억압과 차별의 벽을 보호벽으로 착각
- 성 콤플렉스
- 여자는 성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어야?
- 외모 콤플렉스
- 너무나 훌륭한 여성도 외모로 주눅 들어 하는 말...
- 외모 기준은 남성의 권력과 시선에 의해 형성된 것인데..
- 지적 콤플렉스
- 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며 합리적 사고력이 떨어진다?

- 만딸 콤플렉스
- 만딸은 살림 밀천?
- 슈퍼우먼 콤플렉스

변하고 있나?

- 여자의 몸, 남자의 몸
- 예뻐 보이려는 ‘포획된 상태’에 대한 딜레마
- 그러나 드디어 남자들이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
- 외모 경쟁에서 더 이상 여자가 이길 수 없다?
- 고압가스안전관리시행규칙 개정

이 시대 페미니스트의 숙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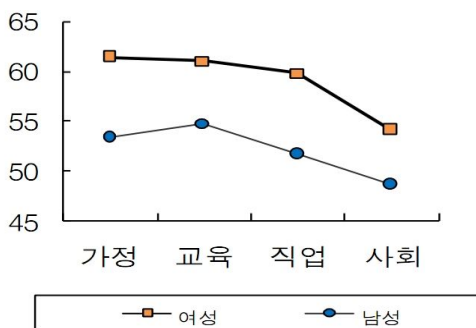
- 나는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있을 때 ‘페미니스트’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까봐 혹은 배척 받을까 봐 두려워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다
-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까 염려된다

“네일아트 어디가 이쁘더라”, “명품가방 사러 가자” <세상>

vs 성폭력, 성희롱, 한부모 가족 <민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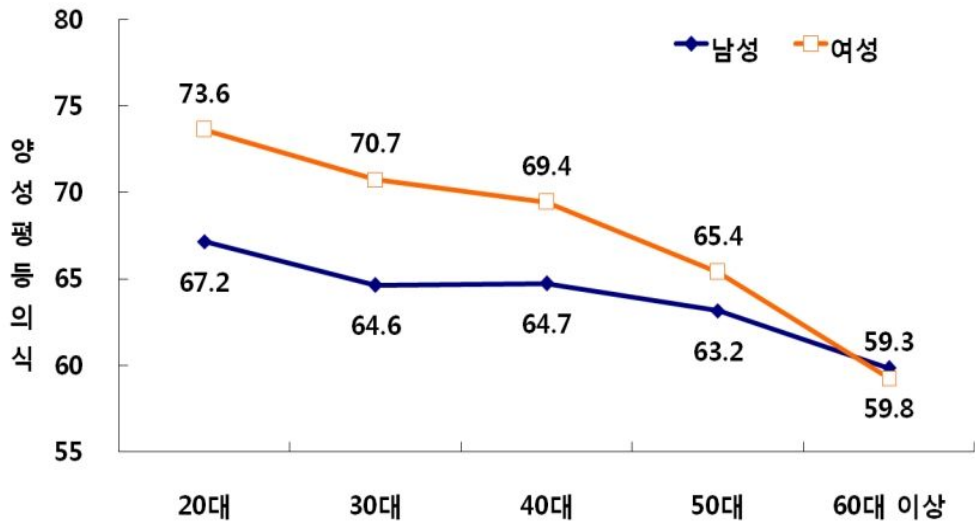
2. 여자와 남자의 차이

한국인의 성평등의식(K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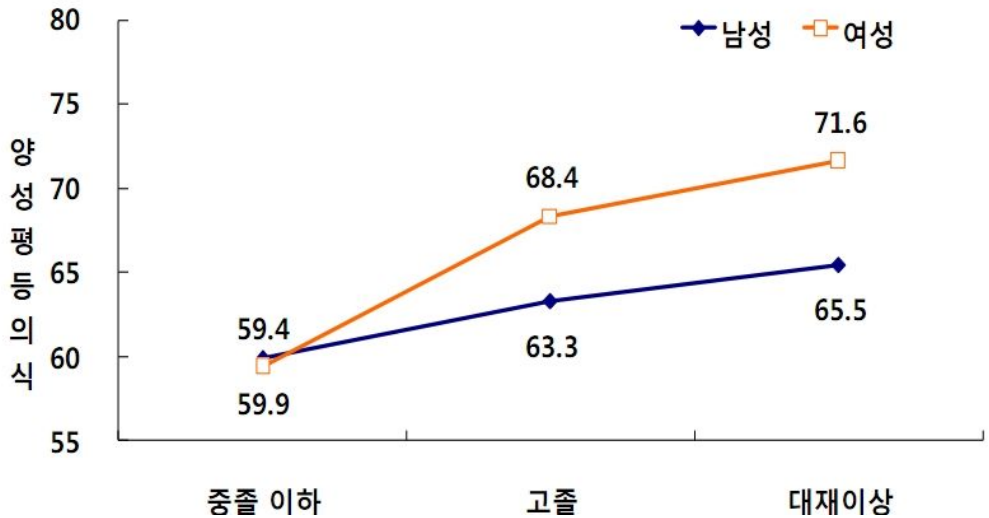
-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남성보다 더 평등적
- 성별 격차는 가정과 직업 영역에서 가장 큼
- 남녀 모두 사회문화 영역에서 가장 불평등적임

성별, 연령대별 성평등의식(KGES)



- 전은 총일수록 성 평등한 경향
- 나이 들수록 성별 격차는 줄어듦.
- 연령대별 차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현격히 큼

성별, 학력 수준별 성평등의식(KGES)



- 학력이 높을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음
- 교육이 성평등 의식에 매우 중요함
- 교육수준별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보다 현격히 큼

세상이 말하는 남녀의 다른 점

- 남자는 여자를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 (도피성, 비겁?)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려고 술을 마신다.
- 남자는 잊을 수는 있지만 용서는 못한다고 한다. (뒤끝?)
여자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지는 못한다고 한다. (진정성?)
- 남자의 무관심은 그 자체가 무관심이다.
여자의 무관심은 질투일 때가 많다. (내숭?)
- 남자는 영화배우 같은 여자와 사랑하길 꿈꾼다.
여자는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꾼다. (스토리 중독?)
-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첫 남자인길 바란다.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이 마지막 여자인길 바란다. (안정지향적?)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 무슨 생각이 듭니까?
- 배신감?
- 허 재밌네!
- 나는 남편과의 결혼을 더 자주 후회하는데???
- 남자들의 반응은?

정운과 아내의 대화

아내: 당신, 진짜로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해?

정운: (약간 주저하다) “응, 가끔...”

아내: “난 만족하는데...”

정운: 어찌할 줄 몰라 주눅거림

아내: (나지막하게) “아주 가끔...”

“가끔” 후회하는 남편과 “아주 가끔”만족하는 아내

밥이란?



한국 여자들에게 밥이란? !?

여자에게 밥은 곧 분위기!

여자들에게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남자친구와 우아한 저녁을 즐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고, 속상한 날에는 술을 마시기 위해 김자탕 집을 찾아요. 여자에게 밥이란 분위기 따라 달라지는 수단이에요.

“밥 줘!!!”, “니가 좀 차려먹어!!!”

밥 달란 소리는 여자에게 그만 해방되고 싶은 어떤 것이예요. 여자는 결혼을 하면 매일 같이 밥을 차려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밥하는 기계가 있었으면 할 정도예요. 정말 밥이 하기 싫을 때, 여자는 사골을 끓여요. 사골을 끓인다는 의미는 ‘니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정도로 여자는 가끔 밥에게서 일탈을 꿈꾸기도 해요.

한국 남자들에게 밥이란? ?!

밥 그릇 싸움, 곧 생존!

첫번째로 남자들에게 밥이란, 곧 생존이에요. 일명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사람들은 말해요. 남자들은 생활속에서 늘 '영역 싸움, 세력 다툼, 영역 다툼'이라는 의미로 내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서로간의 쟁탈전을 벌이기도 해요.

밥 한번 먹어야지, 곧 친목 도모?

남자들은 이상하게 헤어질 때 끝인사로 '밥 한번 먹어야지, 술 한번 해야지' 라는 말을 늘 하고 다녀요. 하지만, 정작 그때 밥먹자고 했는데 언제 먹냐는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인사치레 또는 친근감을 내세우기 위한 말이에요.

밥 값도 못하냐?, 곧 능력과 자존심!

밥 값도 못하냐는 말을 하는 것은 남자의 자존심을 박박 긁는 말이에요. 흔히들 돈을 버는 것을 밥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밥 값도 못한다는 것은 돈도 못버는 무능한 남자임을 뜻해요.



후회에 대하여

- 남자는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고 여자는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다
- IF심리학 (닐 로즈):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최근에 일어난 일과 관련되며,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는 오래 전에 일어난 일과 관련된다
-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는 반면,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짧다
- 고로, 여자들의 후회는 짧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적응하고 남자들보다 오래 산다
- 사실은 출세와 명예에 대해 콤플렉스가 남자를 빨리 죽게 한다는 이론?

3. 고정관념과 담판 짓기

이 아이와 놀아주세요



고정관념의 힘

“여자는 과학을 못해”(고정관념) <=> 과학과외는 아들에게만 시킴(차별적 행동) <=> 아들은 과학을 잘하고 딸은 못하게 됨 (결과)

차별의 범위

* 태도의 구성요소: 감정, 인지, 행동

감정적 측면 (편견)

- . OO은 싫다
- . OO과 가까이 하기 싫다

인지적 측면 (고정관념)

- . OO은 게으르다
- . OO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

행동적 측면 (차별)

- . OO을 친구로 사귀지 않는다
- . OO을 채용하지 않는다

=> 의식과 행동에서 OO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정형화된 시각

여성을 보는 남성의 정형화된 시각

- 의지하고 싶은 ‘모성형 여성’
어머니, 누나 같은 여성
- 투쟁적이고 강인한 ‘전사형’
남자들이 가장 싫어함
- 여성미 넘치는 ‘만인의 연인형’
이성으로서의 여성적 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

여성 스스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정형화된 방식

- ‘나 여자 아니에요’
- 자신이 여성으로 보이는 것도, 여성으로 불리는 것도, 여성으로 인식되는 것도 원치 않음
-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함과 특혜를 모두 거부하고 완벽하게 남성과 똑같아지기 위해 노력함
- ‘여자라서 행복해요’
- 눈에 보이는 차별 문제는 대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
-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
- ‘무슨 일 있어요?’
- 왜 ‘여성’이 이슈가 되는지, 여성이 왜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지 거의 관심 없음

주체성과 성 정체성

“나를 여자로 보아주지 마세요”???

➤ 주체적 자아를 위한 성 정체 재 사회화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열정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서 나온다

-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GDP의 신화

➤ 한국인 2010행복지수: 97개국 중 58위

“GDP 대신 GNH국민총행복지수 필요”

➤ Gross National Happiness

- 생활수준, 건강, 교육, 우수한 거버넌스
- 생태계 다양성과 복원력
- 지역공동체의 활력
- 문화적 활력과 다양성
- 시간활용과 균형
- 심리적 웰빙

새로운 사회모델 필요

➤ 라이안 아이즐러

- 어린 시절 나찌캠프 경험

- 인간이 돌봄과 동정, 창의성 등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인류역사는 파괴와 잔인함,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되었나 의문

- 여성주의 가치와 접하면서 지배문화의 문제를 깨닫게 됨

➤ 권력을 정의하고 실취하는 두 가지 방법

- 지배모델

- 냉혹함, 강인함, 경쟁, 정복, 지배 등 남성적 원리가 우선순위
- 돌봄, 동정, 비폭력 등 여성적 원리 간과
- 사회시스템은 권력과 통제에서 위에 있는 이들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

- 성역할이 경직적이고 여성적 가치가 열등하게 취급됨
-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

파트너십 사회

- 파트너십모델

- 차이는 다원화된 사회 위한 주요 가치로 여겨짐
-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구조
- 여성과 남성의 협력적 관계 강조
- 파트너십모델에 기반한 국가들(예: 노르딕)
 - 여성의 지위와 성평등 수준이 높음
 - 돌봄과 같은 여성적 가치 중시
 - 보편적 의료보험, 양육지원금, 노인 돌봄, 유급육아휴직 등은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 가능케 함
 - 평화연구 가장 먼저 시작되고 활발, 생태적 조화 노력
 - 가정폭력, 아동폭력 법제화에 앞장 섬
 - 남성이 여성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남성성을 위협한다고 느끼지 않음
 - 남성운동은 남성성을 폭력성에서 분리하려 노력

여성주의 가치의 확산 필요

- 여성주의는 여성 억압의 역사를 구성하는 제도/실책/무의식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기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청산하고 대안적 기획을 구상하며 실행시키려는
 - 정치적 목표를 가짐(양민석, 2006)
- 여성의 특수한 경험에 가치 부여
- 돌봄과 배려, 소통과 협력, 육성 등의 가치가 확산된다면 조직과 사회를 대안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토대가 될 것

여성주의 가치의 실천

- 다양성과 차이 존중
- 상호의존과 협력, 공동체
- 민주, 자율, 참여와 평등
- 보살핌
- 육성
- 임파워먼트
- 변혁에 대한 희망
- 최선과 긍정

5. 나 스스로 자유로운...

모욕의 매뉴얼을 준비하다

“세상은 여전히 복마전이다.

나는 자주 길을 잃거나 발을 헛디딘다. 끝내 닿으리라 찾아 해매던 그곳의 기억마저 때로 가물가물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꿈결에도 길을 묻곤 한다.”

“사회의 2등 인간인 여자이고, 흠뻑으로 움치고 뿔 수 없는 애 딸린 아줌마이고, 아직 나잇살로도 밀어 붙일 수 없는 젊은 것”

“싸우지 않을 수는 없다. 모욕을 참고 견디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그런데 싸우려면 잘 싸워야 한다. …… 그래서 나는 오늘도 모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모욕해 올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맞받아칠 수 있는지 고민한다.”

콤플렉스에 대한 콤플렉스 벗어나기

이 척박하고 불안정한 땅에서 여자로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인가. 그리하여 멍에처럼 들쓰고 방어막처럼 스스로를 둘러친 콤플렉스 또한 어디 한두 가지이겠는가.

어쩔 수 없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에 의해 나를 규정하고 스스로 헌신하는 방법에 길들여져 있음에 틀림없다. …나에게도 상반되지만 떨어뜨릴 수 없는 여성의 두 가지 상, 요부와 모신상의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믿어 줄까? 나는 … 내 삶 속에서 자라난 콤플렉스들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나는 알뜰고도 농염한 요부처럼 자기에게 충만하고 도취된 순간이나, 한없는 포용과 희생의 모신처럼 스스로를 덜어 나의 분신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을 충분히 즐기려 한다. 나는 패배한 듯 하나 결코 패배하지 않고……지금까지 술한 억압과 굴욕과 능욕의 세월 속에서도 곳곳이 버티며 또 다른 미래의 생명을 잉태하여 이어온, 바로 그 여성의 딸이자 어머니이자 여성 자신인 것을.

김별아. 모욕의 매뉴얼을 준비하다

상자 밖에서 사고하기

나의 사고 패턴 이해하기

안전지대 벗어나기

Comfort zone

감수성 키우기

- 자기 중심성 egocentricity
- 남의 신발을 신어보다

공정에너지가 흐르게

▶공정도 습관

- 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 오늘 할 기쁜 일 3가지 떠올리기

- 매일 밤 잠 들기 직전에

: 오늘 있었던 기쁜 일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또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핸드폰에 ‘지금 감사한 일’입력하기)

지금 나의 삶 즐기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기적을 낳는다”

▶ 故랜디 포시 교수

- 마지막 강의 The Last Lecture

- (어느 5월 저녁)

“In this private moment,

I was obviously in high spirit...

I was still fully enga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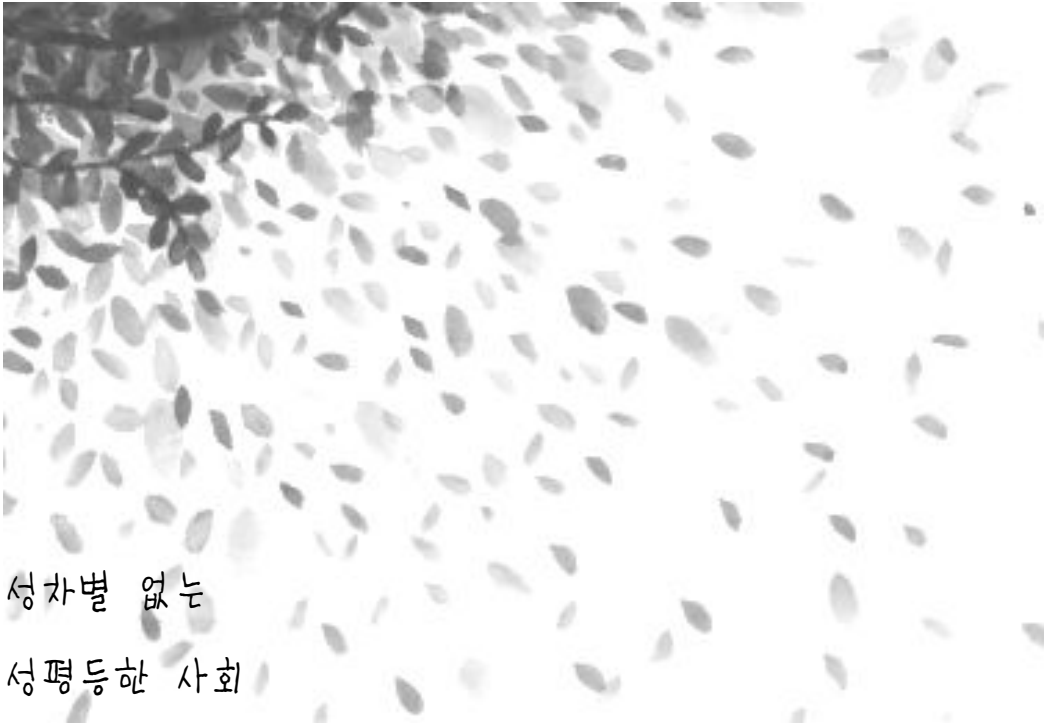
I still knew life was good.

I was doing OK.”

To be continued

▶ 성숙하고 포용하면서 둥글둥글 살아갈까, 아니면 끝까지 까칠하게 갈까

▶ 갈등은 계속되지만...



성차별 없는
성평등한 사회
다양한 차이가
존중되는 세상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에서
일상 속의 여성운동!

바로 당신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2011 민우여성학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전국 민우회가 함께하는 민우 여성학교와 함께한. 올 가을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나요?

여러분의 여성주의적 생활설계를 돕고 행복한 삶의 대안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민우회를 소개합니다. 계속 만나러 오가는 즐거운 '관계'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든든한 배역, 친근하고 속 깊은 친구 '민우회'를 소개합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3층

02 737 5763 회원가입 : friend87@womenlink.or.kr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1 로데오메탈릭타워

031 907 1003 □ goyang@womenlink.or.kr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55-5 번지

062 529 0383 □ gjwomenlink@hanmail.net

●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시 산본동 1137-1번지 대원플라자 301호

031 396 0201 □ gunpo@womenlink.or.kr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336 청구상가 304호

02 2643 1253 □ namseo@womenlink.or.kr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타워상가 115호

02 3492 7141 □ dongbuk@womenlink.or.kr

● 원주여성민우회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번지 맑음빌딩 6층
033 732 4116 □ wonju@womenlink.or.kr

●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756-245번지 302호
032 525 2219 □ incheon@womenlink.or.kr

● 진주여성민우회

경남 진주시 동성동 213-18번지 리버사이드빌딩
055 743 0410 이메일 □ jinju@womenlink.or.kr

● 춘천여성민우회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686-3 2층
033 255 5557 □ chuncheon@womenlink.or.kr

2011 민우여성학교
지금만나러 갑니다.

- 교육자료집 -

2011년 9월
한국여성민우회 제작·발행.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3층

☎ 대표전화 02-737-5763

e-mail : minwoo@womenlink.or.kr

홈페이지 : www.womenlink.or.kr

